

보도설명자료 (’16.8.1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KS인증 사고팔아도 제재 못해… 안전관리 구멍”

(’16.8.16 동아일보)

1. 기사내용

- 지난해 10월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강철이 현행 유효한 KS인증을 보유한 중국 신창다강철을 금년 6월 인수함
 - 타이강강철의 철근 생산 인력이나 설비는 KS인증 취소 당시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타이강강철이 KS인증을 가지게 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(KS) 수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공장에 주는 인증 제도로,
 - 중국 타이강강철이 KS인증을 보유한 신창다강철을 인수했다 하더라도, KS인증이 취소된 타이강강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KS인증제품이 아님
 - 양도양수 및 공장이전되어 생산된 KS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통해 KS인증 유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

※ 문의 : 산업부 국표원 표준정책과 박주승 과장(043-870-5340)
노학엽 연구관(043-870-5346)
표준조정과 이석우 과장(043-870-5380)
정연태 사무관(043-870-5386)